

충남대학교 세종지적재산권 연구소가 “Law & IP” 제9권 제1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9권 제1호부터는 개정된 발간규정에 따라 년 2회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발간하는 것으로 발행일이 변경되었습니다. 제8권 발행부터 학생들 중심에서 교수진이 중심이 되는 것으로 발행 주체의 성격이 변경되면서 1년의 과도기적 준비기간이 필요했고 이런 준비를 거쳐 2019년부터는 원래 계획했던 바와 같이 7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발행일을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aw & IP의 발행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학술지의 성격이 법률 전반에 관한 학술지가 아니라 지적재산권법에 집중된 학술지이다 보니 연구진의 규모가 협소하고 그러다 보니 투고자의 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여전히 높은 반면에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연구는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들은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 깊은 연구결과물을 내지 못하는 연구진들에게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학문적 연구보다는 실무에 많은 우수 인재가 쏠리는 것에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이 어제 오늘 있었던 일도 아니고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Law & IP의 2019년 단기적 과제는 2020년 등재후보지 신청을 위해 착실히 그 기반을 다지는 것에 두고자 합니다. 2020년 이후 장기적으로는 지적재산권법 연구진의 확대를 위하여 신진학자들의 발굴에 애쓰고 Law & IP가 이들의 새롭고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전개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종지적재산권 연구소에서

개최하는 세미나에 그 동안 제자들을 보내주신 강원대 정진근교수님과 경북대학교 배대현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후 제자들을 발표자로 추천하신 많은 교수님들께도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교외의 이들 신진학자들의 발표가 넓게는 지적재산권법 연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며, 충남대학교 박사과정 재학생들에게도 많은 자극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제9권 제1호는 새롭게 취임하신 박세화위원장님 체제 하에 처음으로 발행되는 호입니다.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님을 하신 경험도 있으신 등의 이유로 연구소와 학술지 발행의 어려움을 박원장님께서 잘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권 제1호에의 발행을 위해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도움을 주신 충남대학교의 지적재산권법 담당교수님들과 전국 지적재산권법 교수님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2019년 6월 19일

세종지적재산권 연구소 소장